

## ◎ 벤처협회, 중국 온오프라인시장 판매 본격화

- 북경에 한국제품 상설전시장 운영
- 중국 온라인쇼핑몰 입점도 지원

협회(회장 서승모)는 벤처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벤처제품을 중국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협회는 9월말 중국 북경소재 한국제품전문 상설전시장 운영기업인 북경커리화상무유한공사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벤처제품의 중국 현지 상설 전시장 전시 및 중국 내 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북경커리화는 약 1,600평의 상설전시장을 갖추고 한국 제품 중 우수한 제품만을 선별해 중국 현지의 도소매 유통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초청 상담회 개최 및 중국 현지 TV 홈쇼핑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직접적인 제품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고펜(www.gompu.com)라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자동입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플레이오토(대표 김중안)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이취넷, 알리바바닷컴, 알리바바차이나 등에 벤처제품을 입점 시키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제품 전문쇼핑몰인 브이샵(www.v-shop.co.kr)에 제품을 우선 등록하고 해외 판매를 신청하게 되면 국내 물류, 수출 통관, 중국 현지 배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부피가 작은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회 전대열 상근부회장은 “이번 두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벤처기업이 중국시장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게 됨으로써 향후 가시적인 수출성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시장 온·오프라인 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협회 마케팅지원팀(02-890-06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 벤처기업 10월 실적 소폭 하락 하였으나, 호전 양상

- 10월 실적지수 108, 11월 전망지수 123
- 벤처기업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집중 지속

벤처기업협회 부설 벤처기업연구원(KOVRI)은 “벤처기업의 10월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전월대비 4p 하락(112→108)한 108로 조사되어 체감경기가 전월 실적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4월부터 다소 변동은 있으나, 기준지수 100이상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월(71) → 2월(77) → 3월(96) → 4월(110) → 5월(109) → 6월(107) → 7월(103) → 8월(102) → 9월(112) → 10월(108))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기는 내수·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10월 실적지수는 '108', 11월 전망지수는 '123'으로 나타났다. 10월 현재 벤처기업의 경기실사지수 자체는 소폭 하락 하였으나 기준지수 100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기 호전으로 해석된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투자 실적지수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구개발투자 실적지수는 연초대비 18p 상승, 생산설비투자 실적지수는 24p 상승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BSI를 세부지수별로 살펴보면, 내수는 전월 대

## ● 무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브이빌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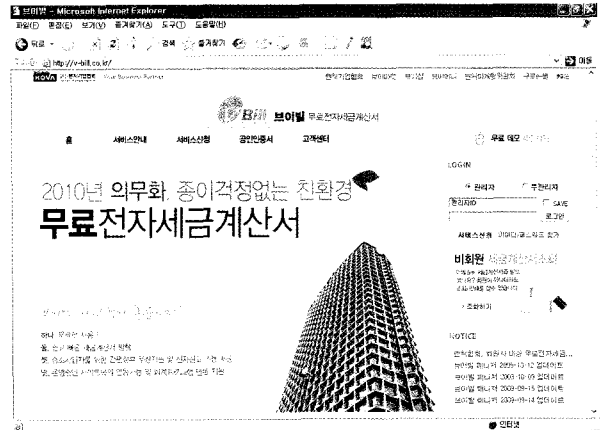
- 월 50건 무료 발행 지원

협회는 플레이오토(대표 김종안)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발맞춰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브이빌(V-Bill)' 서비스를 10월 22일 오픈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거 종이로 인쇄되어 제공되었던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미 발행 매출액의 2%, 국세청 미전송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발행건당 100원(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브이빌 서비스를 통해서 월 5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행가능하며, 견적서, 거래명세표 발행, 간편장부 작성, 홈페이지 연동 등 다양한 서비스도 무료로 같이 제공된다. 하지만 계산서 발행량이 많거나 기존 ERP 프로그램 등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 이번 브이빌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담당한 플레이오토는 자체기술로 국세청 표준인증을 획득한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그동안 온라인 쇼핑물 자동입점관리 솔루션 제공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부동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플레이오토의 김종안 대표는 "그동안 플레이오토의 성장에 여러모로 기여를 해주셨던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하고자 이번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위한 유용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브이빌([www.v-bill.co.kr](http://www.v-bill.co.kr))을 방문, 간단한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를 거쳐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비 6p 하락한 107, 수출은 전월 대비 3p 하락한 94로 조사되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1월 전망은 내수가 122, 수출이 105로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익성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96→96)하였으며, 자금사정도 1p 하락(87→86)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채는 3p 하락(110→107)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수익성 전망은 110, 자금사정 전망도 104로 조사되어 기업의 수익성 및 자금사정의 호전이 예상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시종업원수가 전월대비 6p 상승(108→114), 임시종업원수는 4p 상승(103→107)해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10월 전망도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벤처기업의 10월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자금 확보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전월(20.6%) 대비 0.9% 하락한 19.7%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판매부진(14.0%), 인력확보(7.9%),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부진(7.3%),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 상승(6.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12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15,401개를 대상으로 업종 및 규모를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하여 300개 기업 패널을 구축해 200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온라인 BSI 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BSI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기업 수와 부정적인 응답 기업 수가 같은 보합을,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호전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악화를 의미한다.